

제목	루지아주이 포럼(陸家嘴論壇)의 주요 논의 내용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◆ 2023. 6. 8 ~ 9일중 상해에서는 「제14회 루지아주이 포럼\* (陸家嘴論壇)」이 개최되었으며, 이강(易綱) 인민은행 총재, 리원저(李雲澤) 국가금융감독 관리총국 국장, 이후이만(易會滿)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, 판궁성(潘功勝) 인민은행 부총재 겸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등 주요 고위 금융당국자들은 동 포럼에서 향후 중국경제 관련 주요 이슈, 중국 금융시장 발전 방향 등을 언급\*\*하였음

\* 2008년부터 매년 6월경 상해시 루지아주이(陸家嘴)지역에서 개최되며 중국의 고위 금융당국자 및 정부인사, 금융전문가, 유명 석학 등이 참석하여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 및 금융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

\*\* 이하 내용은 포럼 개요 및 주요 인사의 발언 내용 등을 정리

※ 상해주재원은 상해시 인민정부 및 인민은행의 초청으로 제14회 루지아주이 포럼에 직접 참석

## 1. 포럼 개요

- 명칭 : 제14회 루지아주이 포럼(The 14<sup>th</sup> Lujiazui Forum 2023)
- 주제 : 글로벌 금융개방과 협력 : 경제회복의 새로운 동력(Global Financial Opening-Up and Cooperation : New Drivers of Economic Recovery)
- 시기 : 2023. 6. 8(목) ~ 6. 9(금)
- 장소 : 상해시 루지아주이
- 주최 : 상해시 인민정부, 인민은행,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,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
- 주요 참석자 : 이강(易綱) 인민은행 총재, 리원저(李雲澤)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, 이후이만(易會滿)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, 판궁성(潘功勝) 인민은행 부총재 겸 국가외환관리국 국장, 천지닝(陳吉寧) 상해시 당서기 겸 중앙정치국위원, 공정(龔正) 상해시 시장 등

## 2. 주요 논의 내용

### (1) 이강(易綱) 인민은행 총재

-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녹색금융 발전이 중국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
  - 30/60(2030년 탄소피크/2060년 탄소중립)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녹색전환 및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, 주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언급
  - 인민은행 등 금융부서는 현재 녹색금융 관련 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중이며, 향후 환경정보 공개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, 민간 투자자가 녹색전환 참여에 따른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이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
  - 또한 이강 총재는 2021년 처음 실시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하여 향후 테스트 시나리오 보완, 테스트 대상 은행 및 산업의 범위 확장 등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
- 한편 이강 총재는 포럼 이후 상해시에서 개최된 국내, 외국 기업 및 금융기관간 간담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물경제 지원 강화, 고용 촉진 등 향후 정책기조를 제시
  - 금리 인하\* 등 금융정책을 완화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역주기 조절 정책을 특히 강조

\* 실제 인민은행은 6.13일 7일물 역RP 금리를 10개월만에 10bp 인하(2.0% → 1.9%)한 가운데, 시장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(LPR)의 6월중 인하가능성을 높게 예측

## (2) 리윈저(李雲澤)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

- 리윈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은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,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부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
- 또한 경영환경의 시장화·법치화·국제화를 실현하며, 자산관리, 녹색금융, 양로건강 등 분야에서 우수한 외자기관이 중국내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

## (3) 판궁성(潘功勝) 인민은행 부총재 겸 국가외환관리국 국장

- 중국의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, 중국 외환당국은 수년 동안 외부충격에 대처하는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수단을 보유

## (4) 이후이만(易會滿)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

-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시장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·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, 주식, 채권, 사모펀드를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 인센티브 및 우리 사주 소유지분 개선 등 자본시장의 시스템과 매커니즘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

## (5) 공정(龔正) 상해시 시장

- 상해시를 글로벌 재보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금번 포럼에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공동으로 상해시 국제 재보험센터 건설 가속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, 상해시 국제재보험위원회도 출범
- 상해시를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국제 재보험 거래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개방을 가속화할 예정

## **(6) 왕신(王信) 인민은행 조사국 국장**

- 왕신 인민은행 조사국 국장은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언급하였던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녹색 저탄소 관련 가격형 및 비가격형 수단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설명
  - 탄소세, 탄소배출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, 기타 관련 세금 등이 탄소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 수단이며, 비가격형 수단으로는 탄소감소 목표제, 재정 및 조세 지원 정책 등이 있다고 설명
  - 향후 인민은행은 가격형 및 비가격형 수단에 대한 유효성 분석을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

## **(7) 저우샤오촨(周小川) 전 인민은행 총재**

- 상해자유무역구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내 혼재되어 있는 자유무역구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
  - 또한 상해시가 국제금융중심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역내 및 역외 위안화 사용의 자유화가 절실하며, 주식, 채권 등 자본시장 뿐만 아니라 외환, 신용, 지급결제 등의 영역도 개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

## **(8) 진펑후이(金鵬輝) 인민은행 상해총부 부주임 겸 상해은행장**

- 진펑후이 인민은행 상해총부 부주임은 상해시가 그동안 추진하였던 금융 개방과 대외협력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, 현재 인민은행 상해총부와 상해시금융재판소 간 협력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언급

### 3. 현지 반응 및 평가

- 현지 언론들은 2년 만에 개최(2022년은 상해시 봉쇄로 미개최)된 이번 포럼이 상황리에 개최된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
  - 중국 국가기구 개편 이후 1행(인민은행), 1총국(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), 1회(증권감독관리위원회), 1국(국가외환관리국) 등의 금융관리부처 수장들이 처음으로 함께 공개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한 점에 주목
  - 중국의 통화정책, 자본시장, 외환정책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고위 금융당국자들이 금융분야의 실물경제 지원, 대외개방 확대, 금융리스크 방지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정책의 투명성이 강화된 것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(招商証券, 國泰君安証券, 銀河証券)
- 향후 중국의 미래 성장 핵심 전략은 친환경 녹색금융,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디지털 혁신 등이 될 것으로 전망(上海証券報)
  - 탄소피크·탄소중립의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시스템 구축, 글로벌 통화정책 조정 및 금융리스크 완화, 공동번영과 포용적 금융발전, 고령화 금융의 기회와 책임 등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(21世紀經濟報道, 第一財經日報)

#### 루지아주이 포럼 주요 장면

천지닝 상해시 당서기



이강 인민은행 총재



리원저 금융감독관리총국장



판궁성 인민은행 부총재



#### 기타 포럼 사진



사진 촬영 : 한국은행 상해주재원